

대학생의 노인부양과 Care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

정혜선, 이종렬[†], 박천만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Abstract>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Family Support and Care's Socialization in the Elderly

Hye Sun Jung, Jong Ryol Lee[†], Chun Man Park
Department of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college students' suppor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their awareness of the socialization of care for the elderly, since they will have the responsibility for and the support of the aged society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was also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socialization of elderly care, and to contribute to building a care system which promotes a healthy and happy lifestyle for the elderly.

After conducting a survey of 1,100 students from 13 universities around the entire country, I have analyzed 1,089 data forms, and omitted 11 data entries which had errors or were not answered.

1. Those surveyed are 1,089 students from 13 universities around the entire country. Regional distributions are as follows : 263 students from 4 universities in Daegu and Kyongsangbuk Do (24.2%), 291 students from

* 접수 : 2011년 2월 24일, 최종수정 : 2011년 2월 24일, 게재확정 : 2011년 3월 30일

† 교신저자 : 이종렬,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 전화번호 : 053-580-5952,
Fax : 053-580-5164, E-mail : bellten@kmu.ac.kr, 휴대폰 : 010-4506-8578

* 본 논문은 정혜선의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9, 지도교수: 박천만)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음

3 universities in Busan and Kyongsangnam Do(26.7%), 272 students from 2 universities in Jeolla Do(25.0%), 263 students from 4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 Do. Males are 51.7% and females are 48.3% of these students.

2. Instrumental supportive sense level is high in men and emotional supportive sense level is higher in women. Also emotional supportive sense is higher in groups of those having more family members and coming from agricultural regions.
3. The sense of living with aged parents is higher in those living with grandparents than those living separate. The sense of living with sons and daughters after aging is stronger in the students from the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s than in the Social and Human Sciences Departments; also higher for men than women.
4. Recognition of elderly care socialization is higher in those from Social and Human Sciences Departments than from Science and Engineering Departments; higher in the case of upper classmen and aged groups, groups having fewer family members than more family members, and in the case of living separated from grandparents.
5.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living with grandparents were family cohesion and instrumental supportive sense. The factors affecting the sense of elderly care socialization were family cohesion, instrumental supportive sense, and emotional supportive sense.

From th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o insure a healthy and happy lifestyle for aged people, elderly care socialization offered by society and the country must provide desirable, appropriate care services based on the centralized support system of the family. In order to do this, we propose that elderly care needs inter-family and inter-generational fusion programs to improve family cohesion and care recognition. Also, elderly care is in urgent need to build a strong Family and Health Welfare System for care socialization.

Key word : Care's Socialization, Elderly, University Students, Family Support

I.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구조가 현대화, 도시화되었고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2000년에 7.2%로 UN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08년 7월 현재 10%를 넘어섰다(통계청, 2008). 또한 2007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보장 제도에 의한 부양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보건복지의 기반이 약한데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탓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는 노인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03년도 부양비는 11.1%로 생산 가능인구 9명당 노인 1인을 부양하면 되었으나 고령사회로 진입되는 2019년에는 노인부양비가 19.8%로 5명의 생산 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측되는 2026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3.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유교문화적인 전통사회에서는 경로효친 사상에 뿌리를 둔 가족주의를 배경으로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관행으로 노인을 부양하고 보호하였다.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주된 부양이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의존되었고, 가족들에 의해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부양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들의 사회 진출, 가장들의 조기퇴직에 따른 부부갈등과 가족해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통적 가족중심의 가치관 및 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부담감은 크게 증가하여(송근자, 2004; Unlenberg, 1996)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방법만으로는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가족의 부양부담감 증가는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노인유기 심지어는 노인학대 등과 같은 사회적 역기능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Berkman, 1984).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장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현재는 능력 있는 자녀가 부모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은 편이며(백중욱과 김명주, 2009), 노부모와의 동거를 불평하고 귀찮게 여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의 동거

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며느리도 늘고 있다(김명주, 2009). 한편, 노후를 자녀에 의존해온 당사자의 입장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세대는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들 자녀들 역시 부모의 부양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진다거나 부모세대가 스스로 준비한 노후대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석정은, 2008).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노인부양이 가족에게 일임하던 것을 국가 사회와 나누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최연희, 2008), 점차적으로는 국가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Care의 사회화 인식이 강해 질 것으로 보인다(김명주, 2009).

노인 Care의 사회화란 노인부양의 불안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듦과 동시에 부양담당자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고령기에 들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기초로 질 높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부양을 사회전체가 지탱하는 구조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민표, 2001).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문제의 해결 방법을 ‘선 가족 부양 후 사회 보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부모와 성인자녀 모두에게 부담과 갈등,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최옥숙, 2003 ; Kaplan, 1974).

이러한 관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부양문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규범의식이 향후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할 때 젊은이들의 노인부양에 대한 지각, 노인부양 의식, Care의 사회화 인식은 자신들의 인성발달 뿐 아니라 향후 국가의 노인복지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부양의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해 노인부양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Care의 사회화 인식에 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대학생들의 부양의식(권기갑, 2009 ; 김명주, 2009 ; 김정란과 김경신, 2009 ; 백종욱과 김명주, 2009 ; 정창수, 2009 ; 김윤정과 장세철, 2008 ; 최연희, 2008)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노인부양의식과 향후 노인부양의 한 축이 될 국가의 노인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인 Care의 사회화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차 고령 사회의 일차적 부양책임을 지게 될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Care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국 1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응답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이 많은 11부를 제외한 1,08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지역적 분포는 대구경북이 4개 대학교 263명(24.2%), 부산경남 3개 대학교 291명(26.7%), 전라도 2개 대학교 272명(25.0%), 서울경기 4개 대학교 263명(24.2%)이었다.

2. 연구대상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대상 대학교 교수의 협조를 받아 강의시간 후에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출 방식이며 조사 기간은 2008년 8월에서 2009년 6월까지 11개월 이었다.

3. 측정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대학생의 전공, 성별, 연령, 형제 수, 출생순위, 조부모의 존재여부, 조부모와 동거 여부, 출신지역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이란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Olson 등, 1983)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1986년 미국에서 개발된 『FACESIII Assessment』에 포함된 응집성에 관한 인자에 포함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 α = 0.873이었다.

3) 노부모 부양의식

부양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거 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지원, 필요한 자원제공, 인간관계 형성, 일상생활 또는 이동시 도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의 제공' 등을 포함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정창수 2009) 이러한 부양의식에는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거나 감싸주고 위로해 주며

또한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 주고 인격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부양과 노인에게 필요한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거나 가정 내에서 신체적 독립과 가사 운영, 질병시의 간호 등을 제공하는 수단적 부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부양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尹靖水 등(2006)이 개발한 노부모 부양의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총 12문항 중 1문항을 제외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수단적 부양의식 7문항, 정서적 부양의식 4문항).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단적 부양의식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740$, 정서적 부양의식은 0.864였다.

4) 노부모와의 동거의식 및 노후 자녀와의 동거의식

노부모와의 동거의식은 향후 자신의 부모가 늙어 노인이 되었을 때 노부모와 동거여부이며, 노후 자녀와의 동거의식은 자신이 늙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 동거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각 1문항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같이 살겠다는 동거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Care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

Care의 사회화란 인간이 고령기에 들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기초로 질 높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부양을 사회전체가 지탱하는 구조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민표, 2001).

본 연구에서 Care의 사회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太湯好子 등(2009)이 개발한 개호의 사회화 의식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3문항, 3점 척도로 되어있다. 문항은 가족의 부양 책임, 자신의 노부모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장래에 내가 부양을 받아야 할 상태가 되었을 때 희망하는 부양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Care의 사회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622$ 였다.

4. 분석방법

1) 기술통계 및 평균비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응집력, 부양의식, 노부모와 동거의식, 노후 자녀와 동거의식, Care의 사회화 인식은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2) 구성개념 타당성

각 연구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조사하여, 내적일관성이 높은 항목을 선택하였다. 남은 항목을 대상으

로 1요인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0.5이상의 항목을 추출하여 관측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후, 추출된 인자를 인자 구조모델로서 배치하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하여 확증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때 적합도 판정에는 설명력의 지표로서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 ; 이하 GFI라 한다), 수정 적합도 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이하 AGFI라 한다), 비교적합도지수(Comparative Fit Index ; 이하 CFI라 한다), Tucker-Lewis 지수(Tucker-Lewis Index ; 이하 TLI라 한다), 근사 원소 평균 자승 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이하 RMSEA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이때 적합도 지표는 GFI, AGFI, CFI, TLI는 0.9 이상일 때, RMSEA는 0.08이하일 때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QOL, 가족응집력,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Care의 사회화 인식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가족응집력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결과 측정문항 10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0.5이 하인 문항은 없었으며, 적합도 판정 지표인 GFI, AGFI, TLI, CFI, RMSEA가 각각 0.980, 0.956, 0.967, 0.982, 0.055로 나타나 가족 응집력의 구성개념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수단적 부양의식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결과 측정문항 7문항 중 부하량이 0.5 이하인 문항은 없었으며, 적합도 판정 지표인 GFI, AGFI, TLI, CFI, RMSEA가 각각 0.995, 0.987, 0.989, 0.994, 0.031로 나타나 수단적 부양의식의 구성개념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정서적 부양의식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결과 측정문항 4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0.5이하인 문항은 없었으며, 적합도 판정 지표인 GFI, AGFI, TLI, CFI, RMSEA가 각각 1.000, 0.999, 1.000, 1.000, 0.000로 나타나 정서적 부양의식의 구성개념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Care의 사회화 인식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결과 측정문항 3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0.5이하인 문항은 없었으며, 적합도 판정 지표인 GFI, AGFI, TLI, CFI, RMSEA가 각각 1.000, 1.000, 1.000, 1.000, 0.000으로 나타나 Care의 사회화 인식의 구성개념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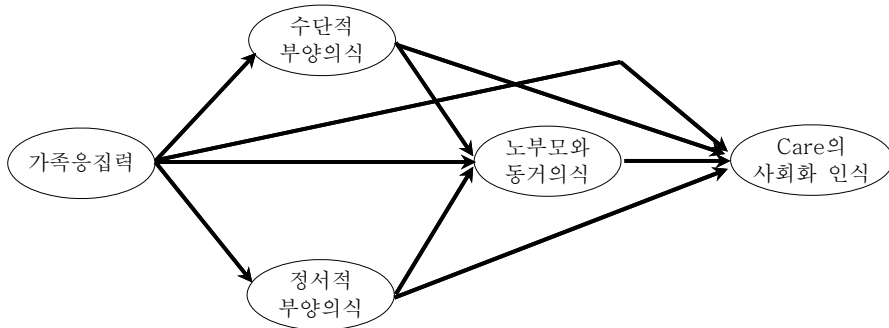
3)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에 관한 구조모델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에 관한 구조모델은 가족응집력이 정서적 부양의식과 수단적 부양의식, 노부모와 동거의식, Care의 사회화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부양의식은 노부모와 동거의식과 Care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며, 노부모와 동거의식은 Care의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인과관계 모델로 구성하였다(그림 1).

구조모델의 적합도 판정 결과 GFI, AGFI, TLI, CFI, RMSEA가 각각 0.940, 0.927,

0.935, 0.943, 0.034로 나타나 적합하였다.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기각비(Critical Ratio ; CR)로 판단해서 그 절대치가 1.96(유의수준 5%)이상인 것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했다.

모든 분석은 SPSS WIN(ver 17.0K), AMOS(ver 4.0)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의 이론적 틀

III.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679명(62.4%)으로 이공계열의 410명(37.6%)보다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이 376명(34.5%)으로 가장 많고, 2학년 297명(27.3%), 1학년과 4학년 208명(19.1%)의 순이었다(표 1). 성별로는 남자가 51.7%로 여자의 48.3%보다 약간 많았으며, 연령은 20세~21세가 31.9%로 가장 많고 22세~23세 27.3%, 24세~25세 16.3%의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58세 였다. 형제 수는 2명이 64.2%로 가장 많았고 평균 형제 수는 2.31명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51.4%, 둘째 37.7%의 순이고 평균 출생순위는 1.64이었다. 가족 수는 4명이 39.9%로 가장 많고 3명 27.3%, 2명 이하 16.8%의 순이고 평균 가족 수는 3.48명이었으며, 대상자의 67.2%는 현재 조부모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부모와 동거여부는 전체의 84.9%가 별거하고 있었으며, 출신지역은 76.1%가 도시지역이었다.

2. 측정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응집력

전공에 따른 가족응집력은 인문사회계열이 4.10점으로 이공계의 4.01점보다 높았으

며($p<0.05$),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4.1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1학년이 3.96점으로 가장 낮았다($p<0.05$) (표 2). 연령에 따라서는 24세~25세와 26세 이상이 4.18점으로 가장 높고 22세~23세가 4.08점, 20세~21세 4.07점, 19세 이하 3.9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 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 가족 수, 조부모 존재, 조부모 동거, 출신지역에 따른 가족 응집력은 차이가 없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
전공	이공계	410	37.6
	인문사회	679	62.4
학년	1학년	208	19.1
	2학년	297	27.3
	3학년	376	34.5
	4학년	208	19.1
성별	남자	563	51.7
	여자	526	48.3
연령	19이하	136	12.5
	20~21세	347	31.9
	22~23세	297	27.3
	24~25세	177	16.3
	26이하	132	12.1
	평균±표준편차(범위 : 18~61)	22.58±4.15	
형제 수	1명	76	7.0
	2명	698	64.2
	3명 이상	314	28.9
	평균±표준편차(범위 : 1~8)	2.31±0.79	
출생순위	첫째	557	51.4
	둘째	409	37.7
	셋째 이상	118	10.9
	평균±표준편차(범위 : 1~7)	1.64±0.83	
가족 수	2명 이하	181	16.8
	3명	297	27.6
	4명	430	39.9
	5명	169	15.7
	평균±표준편차(범위 : 1~5)	3.48±1.07	
조부모의 존재 여부	있다	726	67.2
	없다	354	32.8
조부모와 동거 여부	동거	163	15.1
	별거	914	84.9
출신지역	도시지역	826	76.1
	농촌지역	259	23.9
계		1089	100.0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응집력 및 부양의식

항 목	구 분	가족 응집력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평균±표준편차	t, F	평균±표준편차	t, F	평균±표준편차	t, F
전공	이공계 인문사회	4.01±0.72	-2.058*	4.05±0.60	0.269	4.71±0.50	-0.327
		4.10±0.65		4.04±0.64		4.72±0.50	
학년	1학년	3.96±0.71	2.873*	4.06±0.58	1.563	4.71±0.51	0.050
	2학년	4.08±0.70		4.06±0.59		4.72±0.52	
	3학년	4.07±0.67		3.99±0.66		4.73±0.49	
	4학년	4.15±0.63		4.09±0.65		4.72±0.47	
성별	남자	4.05±0.66	-0.822	4.13±0.61	4.749***	4.66±0.56	-4.263***
	여자	4.08±0.70		3.95±0.63		4.79±0.41	
연령	19세 이하	3.92±0.72	2.480*	4.04±0.59	1.536	4.73±0.54	0.324
	20~21세	4.07±0.68		4.00±0.59		4.73±0.51	
	22~23세	4.08±0.65		4.02±0.64		4.72±0.48	
	24~25세	4.18±0.63		4.09±0.59		4.68±0.51	
	26세 이상	4.18±0.63		4.13±0.74		4.73±0.48	
형제 수	1명	4.14±0.60	0.454	4.04±0.65	1.328	4.70±0.45	0.320
	2명	4.07±0.69		4.06±0.61		4.71±0.49	
	3명 이상	4.06±0.66		3.99±0.65		4.74±0.53	
출생순위	첫째	4.06±0.68	0.085	4.04±0.63	1.145	4.70±0.51	1.284
	둘째	4.08±0.68		4.07±0.61		4.75±0.46	
	셋째 이상	4.08±0.63		3.97±0.66		4.75±0.49	
가족 수	2명 이하	4.07±0.63	0.531	3.99±0.72	0.566	4.56±0.61	7.822***
	3명	4.04±0.73		4.03±0.61		4.72±0.52	
	4명	4.06±0.69		4.06±0.58		4.76±0.42	
	5명	4.12±0.58		4.05±0.64		4.77±0.50	
조부모의 존재 여부	있다	4.07±0.67	0.196	4.04±0.61	-0.236	4.73±0.49	0.722
	없다	4.06±0.71		4.05±0.65		4.70±0.53	
조부모와 동거 여부	동거	4.07±0.60	0.272	4.09±0.58	1.182	4.73±0.52	0.314
	별거	4.06±0.69		4.03±0.63		4.72±0.50	
출신지역	도시지역	4.04±0.70	-1.878	4.03±0.62	-0.708	4.69±0.53	-3.683***
	농촌지역	4.13±0.62		4.06±0.65		4.80±0.38	
계		4.07±0.68		4.04±0.62		4.72±0.50	

* : $p < 0.05$, *** : $p < 0.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이 4.72점으로 수단적 부양의식의 4.04점보다 높았다(표 2). 전공, 학년에 따른 부양의식은 수단적, 정서적 모두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수단적 부양의식의 경우 남자가 4.13점으로 여자의 3.95점보다 높았으나 ($p < 0.001$) 정서적 부양의식에서는 여자가 4.79점으로 남자의 4.66점보다 높았다 ($p < 0.001$). 가족 수에 따른 부양의식의 경우 수단적 부양의식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정서적 부양의식에서 6명이 4.7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2명 이하가 4.5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p < 0.001$), 출신지역에 따라서도 정서적 부양의식에서 농촌지역 출신이 4.80점으로 도시지역 출신의 4.69점보다 높았다($p < 0.001$). 연령, 형제 수 출생순위, 조부모 존재, 조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의식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부모 및 노후 자녀와의 동거의식

향후 노부모와 동거의식은 2.52점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노후 자신의 자녀와 동거의식은 1.77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향후 노부모와 동거 의식에 대한 질문에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2.69점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의 2.51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전공, 학년, 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 가족 수, 조부모 존재 여부, 출신지역에 따른 노부모와 동거의식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전공에 따른 노후 자녀와 동거의식은 이공계가 1.87점으로 인문사회계열의 1.71점 보다 높게 나타나 ($p < 0.01$) 이공계 대학생이 인문사회 계열 대학생보다 노후 자녀하고 같이 살고 싶어 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1.86점으로 여자의 1.6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1.95점으로 가장 높고 24세~25세와 26세 이상이 1.84점, 20세~21세 1.71점의 순이었다($p < 0.05$). 형제 수에 따라서는 2명이 1.82점으로 1명의 1.6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학년, 출생순위, 가족 수에 따른 노후 자녀와 동거의식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Care의 사회화 인식

전공에 따른 Care의 사회화 인식은 인문사회계열이 1.95점으로 이공계의 1.86점 보다 높았으며($p < 0.01$), 학년별로는 4학년이 1.97점으로 가장 높고 1학년이 1.84점으로 가장 낮았다($p < 0.05$) (표 3).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1.95점으로 남자의 1.88점보다 낮았으며($p < 0.05$), 연령에 따라서는 20세~21세와 24세~25세가 1.95점으로 가장 높았고 19세 이하가 1.76점으로 사회화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다($p < 0.001$). 가족 수에 따라서는 2명이하가 2.03명으로 가장 높았고 3명 1.93점, 4명 1.88점, 5명 1.85점의 순이었으며, 조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1.93점으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의 1.85점보다 높았다. 형제 수, 출생순위, 조부모 존재 여부, 출신지역에 따른 Care의 사회화 인식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부모와 노후 자녀와의 동거의식 및 Care의 사회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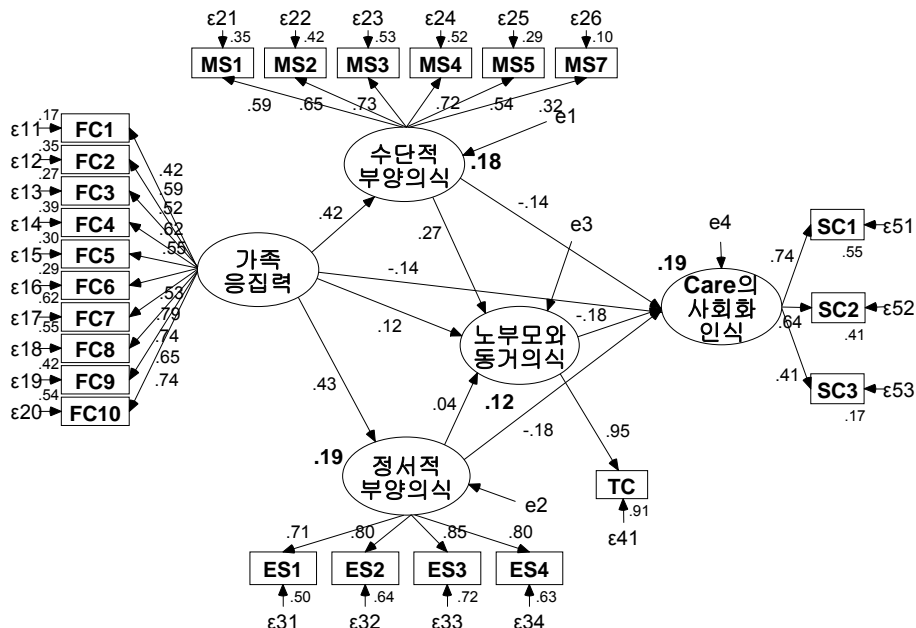
항 목	구 분	노부모와 동거의식		노후 자녀와 동거의식		Care의 사회화 인식	
		평균±표준편차	t, F	평균±표준편차	t, F	평균±표준편차	t, F
전공	이공계 인문사회	2.55±0.72	0.509	1.87±0.89	2.990**	1.86±0.46	-3.407**
		2.53±0.76		1.71±0.88		1.95±0.44	
학년	1학년	2.59±0.69	0.452	1.84±0.88	0.618	1.84±0.46	3.061*
	2학년	2.54±0.74		1.77±0.90		1.92±0.45	
	3학년	2.53±0.76		1.73±0.88		1.92±0.42	
	4학년	2.51±0.77		1.76±0.91		1.97±0.47	
성별	남자	2.57±0.73	1.309	1.86±0.90	3.779***	1.88±0.49	-2.349*
	여자	2.51±0.76		1.66±0.86		1.95±0.40	
연령	19세 이하	2.56±0.72	0.567	1.95±0.91	3.101*	1.76±0.46	5.113***
	20~21세	2.56±0.72		1.71±0.86		1.95±0.41	
	22~23세	2.48±0.79		1.67±0.86		1.92±0.46	
	24~25세	2.55±0.73		1.84±0.91		1.95±0.45	
	26세 이상	2.58±0.75		1.84±0.93		1.93±0.48	
형제 수	1명	2.51±0.81	0.089	1.64±0.84	3.684*	1.90±0.49	1.578
	2명	2.54±0.74		1.82±0.90		1.90±0.45	
	3명 이상	2.54±0.74		1.68±0.86		1.95±0.43	
출생순위	첫째	2.51±0.76	1.270	1.76±0.87	0.072	1.92±0.44	1.251
	둘째	2.56±0.73		1.78±0.90		1.89±0.46	
	셋째 이상	2.61±0.70		1.78±0.90		1.96±0.45	
가족 수	2명 이하	2.49±0.74	0.533	1.75±0.86	1.444	2.03±0.51	5.657**
	3명	2.54±0.76		1.74±0.91		1.93±0.43	
	4명	2.53±0.74		1.83±0.89		1.88±0.43	
	5명	2.59±0.73		1.69±0.86		1.85±0.43	
조부모의 존재 여부	있다	2.55±0.73	0.837	1.74±0.87	-1.233	1.93±0.42	0.847
	없다	2.51±0.77		1.81±0.91		1.90±0.49	
조부모와 동거 여부	동거 별거	2.69±0.66 2.51±0.76	3.059**	1.83±0.91 1.76±0.88	0.949	1.85±0.43 1.93±0.45	-1.974*
출신지역	도시지역	2.52±0.75	-1.395	1.76±0.88	-0.445	1.93±0.44	1.532
	농촌지역	2.59±0.73		1.79±0.90		1.88±0.46	
계		2.54±0.74		1.77±0.89		1.92±0.4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2.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에 관한 구조 모델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에 관한 구조모델은 가족응집력이 정서적 부양의식과 수단적 부양의식, 노부모와 동거의식, Care의 사회화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부양의식은 노부모와 동거의식과 Care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며, 노부모와 동거의식은 Care의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인과관계 모델로 구성하여 구조모델의 적합성 판정과 관련성을 분석하였다(그림 2). 가족 응집력은 기각비(CR)가 9.924($p < 0.001$)로 수단적 부양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족 응집력에 의한 수단적 부양의식의 설명력(SMC)은 17.5%였다(표 4). 또한 가족 응집력은 정서적 부양 의식에도 유의한 영향($CR=11.556, p < 0.001$)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족 응집력에 의한 정서적 부양의식의 설명력(SMC)은 19.9%였다.

가족 응집력과 수단적 부양의식은 기각비(CR)가 각각 2.889($p < 0.01$), 6.567($p < 0.001$)로 나타나 노부모와의 동거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정서적 부양의식은 노부모와 동거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들 변수에 의한 노부모와 동거의식 설명력은 12.1%였다.



n=1,085, GFI=0.949, AGFI=0.934, TLI=0.943, CFI=0.952, RMSEA=0.042

[그림 2]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에 관한 구조모델

표 4. 모델의 모수 추정치, 기각비, 다중 상관 제곱값(SMC)

경로		표준화 계수	기각비(CR)	SMC
가족응집력	→ 수단적 부양의식	0.418	9.924***	0.175
가족응집력	→ 정서적 부양의식	0.434	11.556***	0.189
가족응집력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 노부모와 동거의식	0.121 0.267 0.035	2.889** 6.567*** 0.946	0.121
가족응집력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노부모와 동거의식	→ Care의 사회화 인식	-0.140 -0.142 -0.185 -0.181	-2.908** -3.056** -4.310*** -4.548***	0.193

** : $p < 0.01$, *** : $p < 0.001$

Care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응집력($CR = -2.908$, $p < 0.01$), 수단적 부양의식($CR = -3.056$, $p < 0.01$), 정서적 부양의식($CR = -4.310$, $p < 0.001$), 노부모와 동거의식($CR = -4.548$, $p < 0.001$)이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Care의 사회화 인식의 설명력은 19.3%였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장차 고령 사회의 부양책임을 지게 될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Care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응집력

가족은 애정에 기초한 정서적 집단으로서의 기능이 있으며, 다른 어떤 집단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다. 특히, 노인에게는 은퇴를 하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가족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환경이다(권옥상 등, 2001). 따라서 가족의 응집력은 대학생에게 있어서 노인 부양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에 따른 가족 응집력은

인문사회계열이 4.10점으로 이공계의 4.01점보다 높았는데($p < 0.05$) 이는 전공의 특성상 인문사회계열은 우리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가족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접할 기회가 이공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이 4.1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1학년이 3.96점으로 가장 낮았고($p < 0.05$), 연령에 따라서도 24세~25세와 26세 이상이 4.18점으로 가장 높았다($p < 0.05$). 이는 연령이 높은 대학생이 가족의 친밀도가 높다고 보고한 정창수(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와 대학생 저학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식이 강한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이 4.72점으로 수단적 부양의식의 4.04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적 부양의식보다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다고 보고한 이영진(2001), 고정자 등(1998)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그러나 부양영역별 부양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권기갑(2009)의 연구결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김명주, 2009 ; 김정란과 김경신, 2009 ; 최연희, 2008 ; 백경미, 2005; 송근자, 2004 ; 오세용, 2003 ; 김용순, 2000 ; 고경애, 1990)들이 정서적 부양의식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는데 향후 부양 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부양의식, 수단적 부양의식 모두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아직까지 실제 부양을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즉,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효사상이 강한 규범의식으로 높은 부양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수단적 부양의식의 경우 남자가 4.13점으로 여자의 3.95점보다 높았으나($p < 0.001$) 정서적 부양의식에서는 여자가 4.79점으로 남자의 4.66점보다 높았다($p < 0.001$). 이는 고정자 등(1998), 최승원 등(1997), 이은민(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모든 영역의 부양의식이 높다고 한 연구(권기갑, 2009 ; 정창수, 2009 ; 송근자, 2004 ; 조은아, 2004 ; 김지영, 2001 ; 김용순, 2000 ; 이은경, 1999 ; 최승원 등, 1997 ; 최정혜, 1997 ; 고경애, 1990)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부모 부양의식 특히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은 것은 남자 중심의 전통적인 가계 계승의 특성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대책을 위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은 이유는 남자는 의무감, 책임감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여자는 책임감보다는 부모와의 친밀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수에 따른 부양의식의 경우 수단적 부양의식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정서적 부양의식에서 6명이 4.7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2명 이하가 4.56점으로 가장 낮았다($p < 0.001$). 이는 정창수(2009), 김용순(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족 수가 많을 경우 평소 가족에 대한 사랑, 정 등을 많이 느끼고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부양의식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출신지역에 따라서도 정서적 부양의식에서 농촌지역 출신이 4.80점으로 도시지역 출신의 4.69점보다 높았다($p < 0.001$). 이는 김명주(2009)가 대도시 출신 학생이 부양의식이 가장 낮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최정혜(1997), 고경애(1990)도 농촌지역 출신 대학생의 부양의식이 가장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도시지역보다는 아직 농촌지역이 전통적인 부모에 대한 효사상에 대한 규범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순위에 따른 부양의식은 많은 선행연구(김명주, 2009 ; 최연희, 2008 ; 김용순, 2000 ; 강유진과 한혜경, 1997 ; 이은민, 1995)에서 외동,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부양의식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출생순위가 부양의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모부양의 궁극적 책임은 장남에게 맡겨져 왔으며, 장남은 주 부양자로서 대부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른 부양의식에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근자(2004), 오세용(2003), 김지영(2001)의 연구에서도 출생순위는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 부양의 책임의식이 과거 대가족화의 전통적인 장남부양 책임에서 벗어나 소자녀,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체 자녀에게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부모 및 노후 자녀와의 동거의식

향후 노부모와의 동거의식은 2.52점으로 노후 자신의 자녀와 동거의식 1.77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으로 자신의 부모와는 동거하겠지만 향후 자신의 자녀와는 같이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겠다는 의식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노부모와의 동거의식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2.69점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의 2.5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 0.01$). 형제 수에 따라서는 2명이 1.82점으로 1명의 1.6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이는 김용순(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부모와 동거하거나 형제가 많은 경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가 부모부양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본받아야겠다는 의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1.86점으로 여자의 1.66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은아(2004), 김용순(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부모부양의 모형을 구축할 때 성별 요인으로써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Care의 사회화 인식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주된 부양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을 지어왔고 가족들에 의해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부양을 받아왔으며, 가족은 비공식적인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가족의 힘만으로는 노부모를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부양에 대한 요구(needs)를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부양은 점차 국가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Care의 사회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향후 고령 사회의 부양책임을 지게 될 남녀 대학생들의 Care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의 Care의 사회화 인식은 3점 만점에 1.92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연희(2008)의 연구에서도 부양책임자로 가족과 국가·사회의 공동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호(2003)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이는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노인부양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인부양의 책임이 개인 또는 가정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에 따른 Care의 사회화 인식은 인문사회계열이 1.95점으로 이공계의 1.86점보다 높았으며($p < 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1.95점으로 남자의 1.88점보다 낮았다($p < 0.05$). 이는 가족의 응집력에 대한 조사결과 및 부양의식에 대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조은아(2004)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Care의 사회화 의식이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송근자(2004)는 공적인 부양의식이 이공계열 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령자에 대한 Care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으며, 부양의식 및 Care의 사회화 의식에는 전공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 수가 낮을수록 Care의 사회화 의식이 높았으며,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학생이 동거하고 있는 학생에 비하여 사회화 의식이 높았다. 가족 수가 많고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평소 생활가운데서 가족과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 간의 응집력과

결속력이 강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조부모를 부양하는 부모의 역할 모델로서의 학습효과가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에 관한 구조모델

건강 QOL은 수단적, 정서적 부양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 응집력은 수단적 부양의식과 정서적 부양의식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 응집력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권기갑, 2009 ; 김정란과 김경신, 2009 ; 정창수, 2009 ; 최연희, 2008 ; 한경철, 2008 ; 이지원, 2006 ; 이용호, 2005)에서 모든 영역의 부양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집력이라는 정서적 관계를 매개로 하여 부모부양 의식을 살펴본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로 응집력의 감정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성인기에도 유지될 수 있으며, 부양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므로 부모와의 친밀감이 강할수록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부모에 대한 부양행동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옥숙, 2003). 이러한 결과는, 차후 고령화 시대를 책임질 대학생들에게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 부양을 강조하는 우리사회에서는 가족의 친밀감과 협동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며,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김정란과 김경신, 2009)이 장기적으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책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가족 응집력과 수단적 부양의식은 노부모와의 동거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Care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응집력,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 노부모와 동거의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의식이 높은 집단이 향후 부모와 동거의사가 높다고 보고한 오세용(2003), 김지영(2001), 김용순(2000), 김윤정(1998), 이은민(1995), 고경애(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부양의식이 높은 집단은 일반적으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부양도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Care의 사회화 인식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의 부양을 전적으로 자녀와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부모부양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지우는 것은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부양 스트레스, 노인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Care의 사회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차 고령 사회의 부양책임을 지게 될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 부양의식과 Care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Care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전국 1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응답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이 많은 11부를 제외한 1,0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전국 13개 대학에 재학 중인 1,089명의 대학생으로 조사대상의 지역적 분포는 대구경북이 4개 대학교 263명(24.2%), 부산경남 3개 대학교 291명(26.7%), 전라도 2개 대학교 272명(25.0%), 서울 경기 4개 대학교 263명(24.2%)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51.7%, 여자가 48.3% 였다.
2. 부양의식은 남자의 경우 수단적 부양의식이 높은 반면 여자는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았으며, 가족 수가 많은 집단지, 출신지역이 농촌지역일 경우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았다.
3. 노부모와 동거의식은 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별거하고 있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잔신의 노후 자녀와 동거의식은 이공계가 인문사회계열 보다 높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4. Care의 사회화 인식은 인문사회계열이 이공계보다 높았고 학년이 높고 연령이 많은 집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Care의 사회화 인식이 높았다. 가족 수가 적은 학생이 많은 경우보다 인식이 높았으며, 조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 인식이 높았다.
5. 노부모와의 동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응집력과 수단적 부양의식이었으며, Care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응집력, 수단적 부양의식, 정서적 부양의식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급격하게 약화되어 노부모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생활 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자신의 노부모부양을 사회나 국가에 전가시키는 Care의 사회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Care의 사회화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가족의 해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노부모의 부양은 가족과 사회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친밀감과 협동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며,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책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부양체계의 바탕위에서 국가나 사회가 부양서비스를 제공하는 Care의 사회화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애정의 결속을 강조하거나 노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 서로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의 친밀감과 응집력, 부양의식을 높이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간·세대 간 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Care의 사회화에 따른 내실 있는 가족보건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유진, 한혜경. 비동거 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97; 17(1):271-288.
- 고경애.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1990.
- 고정자, 이은민, 최승원.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연구논문 1998;6:5-33.
- 권기갑.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북:영남대학교 대학원;2009.
- 권육상, 박정미, 류종훈. 노인생활건강. 서울:유풍출판사;2001.
- 김명주.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 조사[석사학위논문]. 경북: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2009.
- 김영호. 청소년의 노부모 부양의식 실태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2003;29(2):41-59.
- 김용순.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단국대학교 대학원;2000.
- 김윤정, 장세철.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의 부모부양의식 비교. 일본문화학보 2008;39:211-229.
- 김정란, 김경신. 가족기능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9;13(4):133-149.

- 김지영.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강남대학교 대학원;2001.
- 백경미. 대학생의 노인부양 의식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기: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대학원;2005.
- 백종욱, 김명주.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 조사. 임상사회사업연구 2009;6(3):67-85.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설명 자료집. 서울:보건복지가족부;2008.
- 석정은. 제도권 효 교육과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동국대학교 대학원;2008.
- 송근자.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대학생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동아대학교 대학원;2004.
- 오세용. 한국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재학생을 중심으로. 조선대 사회과학 연구 2003;29(2):187-216.
- 이민표. 노인부양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고려대학교;2001.
- 이영진.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세대별 연구 - 청주, 청원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충북:청주대학교 대학원;2001.
- 이은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동아대학교 대학원;1995.
- 이은경.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9;37(1):45-65.
- 이용호. 가족관계 및 균형가정이 대학생의 부모부양 의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2005.
- 이지원. 가족기능이 대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북:영남대학교 대학원;2006.
- 정창수.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경북: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2009.
- 조은아. 부모부양의식과 부양가족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의 청·장년층의 부모부양의식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경희대학교 대학원;2004.
- 최승원, 정혜정, 서병숙.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 과학연구 1997;15:83-99.
- 최연희.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 20~30대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경희

대학교 대학원;2008.

최옥숙.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2003.

통계청. 2008 고령자 통계 [전자자료]. 대전:통계청;2008.

URL:http://www.kostat.go.kr/nso_main/nsoMainAction.do?method=sub_index&catgrp=nso2009&catid1=k06__0000&forward=5 (2009년 11월 5일 검색).

한경철.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석사학위논문] 부산:고신대학교 대학원;2008.

太湯好子 `實金榮 `高井研一 `中嶋和夫, 桐野匡史. 家族凝集性と老親扶養意識が介護の社会化の意識に与える影響—東アジア圏域の日本と中国東北地域の比較—. 日中研究交流資料 2009;1-10.

尹靖水 他. ソーシャルワークと東アジアモデルの構築—東アジア 地域用老親扶養意識尺度の開発. 2006年科研費報告書. 東京:厚生省;2006. 7-11.

Berkman, L. F. Assessing the physical health effects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984;5:413-432.

Kaplan, G.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1974.

Olson, D. H., Russell, C. S., Sprenkle, D. H.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1983;22:69-83.

Unlenberg, P. The burden of ag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hifting balance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as cohort age. *The Gerontologist* 1996;36(6):761-767.